

##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4년 9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1.8% 증가, 전월대비로는 0.9% 감소

○ 2014년 9월 생산은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에서 늘고 건설업 등에서 감소한 가운데 전년동월대비 1.8% 증가함.

- 제조업 생산은 1차금속(8.4%), 기계장비(7.8%), 금속가공(8.8%) 등에서 증가하고 반도체 및 부품(-4.7%), 기타운송장비(-5.5%), 의료정밀광학(-7.5%) 등에서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0% 증가함(전월 대비로는 변화 없음)
-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5.6%), 보건·사회복지(6.1%), 부동산·임대(9.2%) 등 서비스업 전반에 걸쳐 증가하였으나 협회·수리·개인(-1.9%)에서는 감소하여 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전월대비 0.1% 증가)

○ 2014년 9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함.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승용차 등 내구재(14.0%),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3%)에서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함(전월대비 3.2% 감소).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기계, 자동차, 기타운송장비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12.7% 증가함(전월대비 13.2% 증가)
- 건설기성(불변)은 토목공사 등의 부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하였고, 건설수주(경상)는 신규주택, 재건축주택, 사무실·점포, 공장·창고 등에서

수주가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6.8% 증가함.

- 2014년 9월 동행종합지수와 선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각각 0.2%, 1.0% 상승함.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등이 감소하여 전월대비 0.2p 하락함.
  -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6p 상승함.

◆ 2014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1.2% 상승(생활물가지수 0.7% 상승)

- 2014년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05(2010년=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3% 하락하고 전년동월대비로는 1.2% 상승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의류·신발(4.1%), 주택·수도·전기·연료(2.6%), 가정용품·가사서비스(2.2%), 교육(1.6%), 음식·숙박(1.6%), 보건(0.9%) 등에서 상승한 반면, 교통(-2.7%)과 주류·담배(-0.1%)에서는 하락함.
  - 2014년 10월 생활물가지수는 107.55를 기록하여 전년동월대비 0.7% 상승함(전월 대비로는 0.5% 하락)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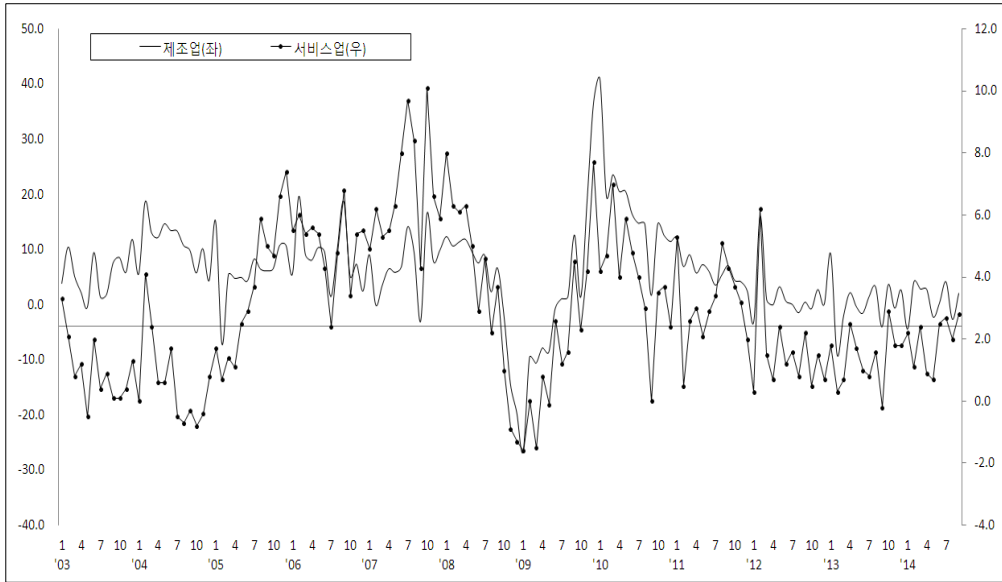
	2011					2012					2013					2014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9월	1/4	2/4	3/4p	9월p	
생산	광공업 생산	9.1	6.2	5.4	3.4	6.0	3.9	1.3	-0.3	0.8	1.3	-0.8	0.0	0.2	1.7	0.3	-3.8	0.7	0.3	1.1	1.8
	제조업 생산	9.3	6.3	5.2	3.6	6.0	4.1	1.2	-0.3	0.6	1.4	-0.8	0.0	0.1	1.8	0.3	-4.1	0.6	0.2	1.2	1.9
	출하	10.2	5.5	4.5	2.9	5.8	3.4	1.7	0.5	0.3	1.5	-0.9	0.3	0.1	1.8	0.4	-5.1	0.2	-0.2	0.4	1.8
	내수	7.3	4.0	3.7	1.5	4.1	1.0	-0.7	-1.3	-1.7	-0.7	-3.4	-2.4	-1.3	1.6	-1.1	-5.7	1.4	1.4	0.5	2.1
	수출	14.1	7.5	5.9	4.5	7.8	6.6	4.8	2.6	2.7	4.2	2.1	3.5	1.7	2.2	2.3	-4.7	-1.2	-2.1	0.3	1.6
	서비스업 생산	2.8	2.7	4.2	3.0	3.2	2.6	1.5	1.6	0.8	1.6	0.9	1.7	0.8	2.1	1.4	-0.2	1.9	1.4	2.5	2.8
소비	소비재 판매	5.2	6.3	4.0	2.6	4.5	2.8	1.4	2.7	2.5	2.4	0.3	1.2	0.7	1.2	0.8	-1.3	2.5	0.7	1.4	1.6
투자	설비투자	5.2	7.4	3.2	-1.4	3.5	8.2	-4.2	-7.9	-6.4	-2.8	-13.1	-4.0	2.7	10.4	-1.3	-5.3	5.9	6.2	1.4	12.7
물가		3.8	4.0	4.3	4.0	4.0	3.0	2.4	1.6	1.7	2.2	1.6	1.2	1.4	1.1	1.3	0.9	1.1	1.6	1.4	1.2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 12. 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을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014년 10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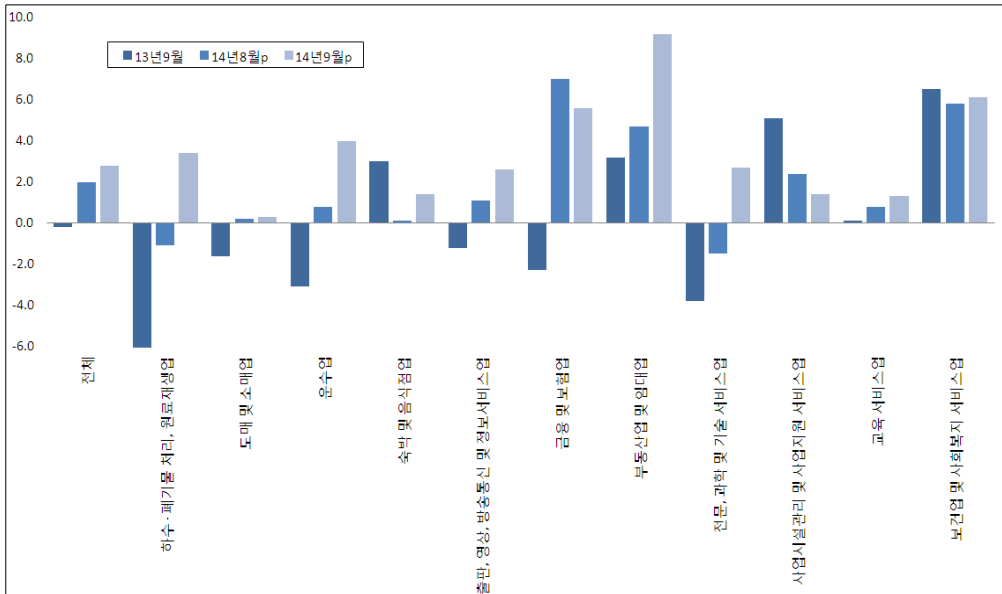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8, 9월 수치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2014.10), 『2014년 9월 산업활동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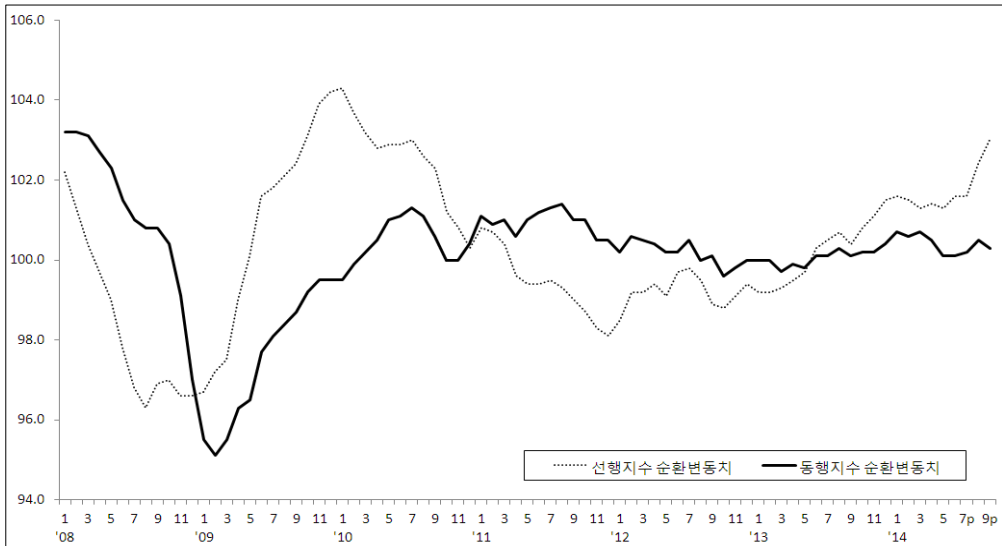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그림 3]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 ·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 추이(2010=100)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배기준,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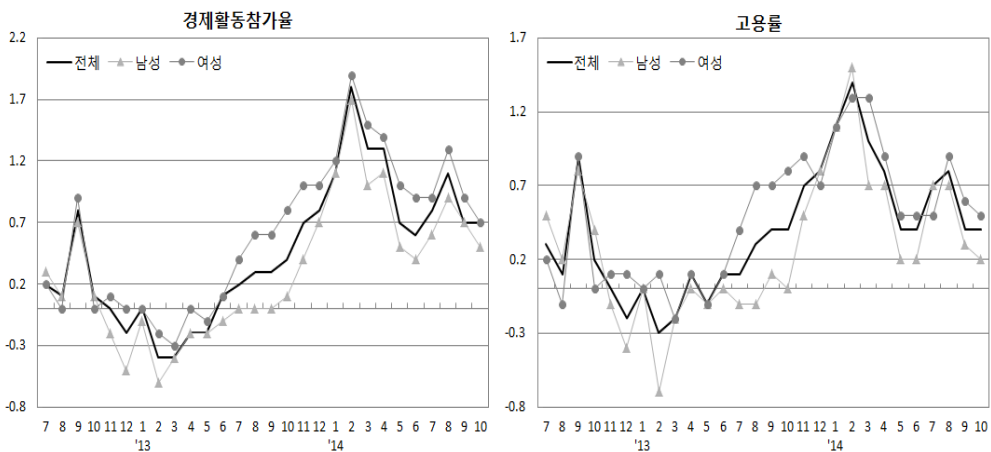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및 취업자 증가폭 둔화**

- 2014년 10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6,80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1천 명(2.1%) 증가함.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5,494천 명으로 266천 명(1.7%) 증가하였고, 여성은 11,315천 명으로 275천 명(2.5%) 증가하였음.
- 2014년 10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2.9%로 전년동월대비 0.7%p 상승함.
  - 성별로 보면, 남성(74.3%)과 여성(51.9%)은 전년동월대비 각각 0.5%p, 0.7%p 상승하였음(그림 4 좌측 참조).
- 2014년 10월 중 고용률은 60.9%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의 고용률은 71.8%로 전년동월대비 0.2%p, 여성의 고용률은 50.4%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음(그림 4 우측 참조).
- 2014년 10월 중 취업자는 25,951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6천 명(1.6%) 증가함.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97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2천 명(1.4%)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97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3천 명(1.9%) 증가하였음(그림 5 참조).

- 2014년 10월 중 실업자는 8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5천 명(18.6%) 증가, 실업률은 3.2%로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함.
  - 남성 실업자는 51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3천 명(14.1%) 증가하였고, 여성 실업자는 34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1천 명(26.2%)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증가하였고, 여성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그림 4]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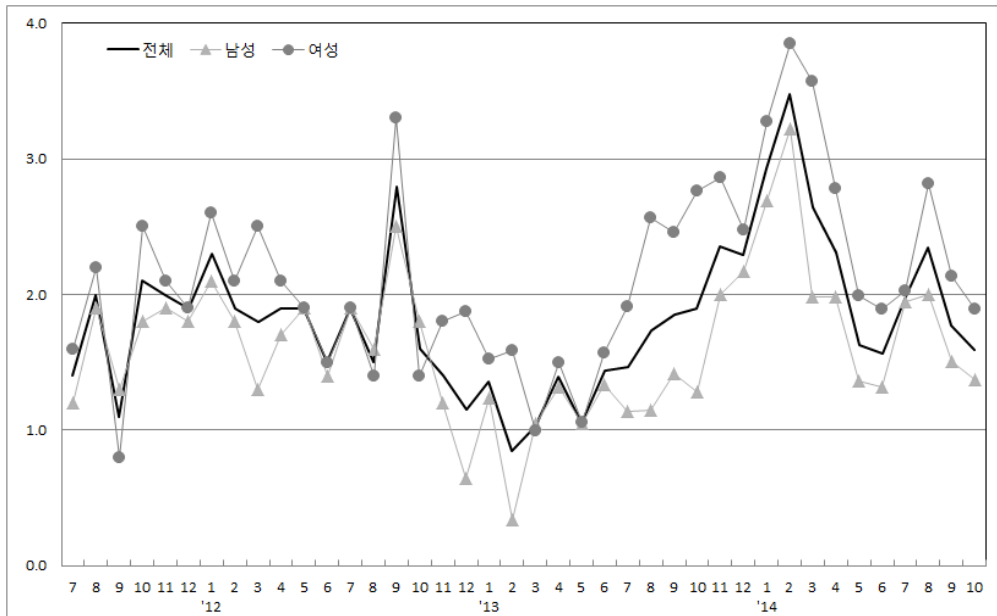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4/4분기
경제활동인구	25,091 ( 0.9)	26,138 ( 1.1)	26,187 ( 1.7)	26,078 ( 2.2)	26,268 ( 1.9)	25,945 ( 3.4)	26,767 ( 2.4)	26,810 ( 2.4)	26,766 ( 2.2)	26,809 ( 2.1)
참가율	59.9	62.2	62.1	61.7	62.2	61.3	63.1	63.0	62.8	62.9
취업자	24,184 ( 1.1)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5,545 ( 1.9)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17 ( 1.8)	25,951 ( 1.6)
고용률	57.7	60.2	60.3	60.0	60.5	58.8	60.8	60.9	60.8	60.9
실업자	907	812	777	733	724	1,031	977	884	849	858
실업률	3.6	3.1	3.0	2.8	2.8	4.0	3.7	3.3	3.2	3.2
비경제활동인구	16,831 ( 2.0)	15,911 ( 1.5)	15,982 ( 0.5)	16,167 (-0.6)	15,949 ( 0.0)	16,397 (-2.6)	15,685 (-1.4)	15,760 (-1.4)	15,845 (-1.0)	15,837 (-0.7)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100  
 자료 : 통계청(2014. 11), 『2014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5]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2014년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3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3천 명(-0.7%) 감소함.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6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 명(-0.9%)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46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5천 명(-0.6%) 감소하였음.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29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7천 명 증가함.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434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 명(-2.1%)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315천 명으로 66천 명(-1.5%) 감소하였음.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증가 지속

- 2014년 10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제조업(143천 명, 3.4%), 건설업(47천 명, 2.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28천 명, 1.4%),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276천 명, 4.9%)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146천 명, -8.3%)과 전기·운수·통신·금융업(-35천 명, -1.2%)에서 감소함.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산업	23,927 ( 2.0)	25,003 ( 1.8)	24,989 ( 2.1)	25,346 ( 2.2)	25,545 ( 1.9)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17 ( 1.8)	25,951 ( 1.6)
농림어업	1,176 (-2.6)	1,713 (-1.4)	1,706 ( 0.1)	1,504 (-1.0)	1,753 ( 0.8)	1,179 ( 1.0)	1,631 (-3.2)	1,603 (-7.0)	1,609 (-7.4)	1,607 (-8.3)
제조업	4,037 (-2.5)	4,061 (-1.6)	4,126 ( 2.1)	4,245 ( 1.2)	4,218 ( 0.7)	4,279 ( 3.0)	4,319 ( 3.3)	4,346 ( 4.7)	4,347 ( 4.1)	4,361 ( 3.4)
건설업	1,721 ( 4.8)	1,807 ( 1.9)	1,772 ( 0.9)	1,783 (-0.5)	1,804 (-0.8)	1,683 ( 1.6)	1,813 ( 0.6)	1,833 ( 3.2)	1,839 ( 2.8)	1,851 ( 2.6)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71 ( 1.8)	5,596 ( 2.6)	5,610 ( 2.1)	5,751 ( 2.6)	5,684 ( 1.7)	5,837 ( 5.5)	5,798 ( 3.8)	5,930 ( 4.9)	5,931 ( 4.8)	5,960 ( 4.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8,398 ( 3.7)	8,820 ( 3.4)	8,772 ( 3.5)	8,994 ( 3.6)	9,033 ( 3.6)	8,865 ( 2.4)	9,147 ( 1.9)	9,176 ( 2.1)	9,166 ( 1.6)	9,161 ( 1.4)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3,011 ( 4.5)	2,991 ( 2.0)	2,990 (-0.4)	3,054 ( 1.9)	3,036 ( 1.2)	3,055 ( 1.9)	3,067 (-0.5)	3,026 (-2.5)	3,013 (-2.0)	3,001 (-1.2)

주: 1)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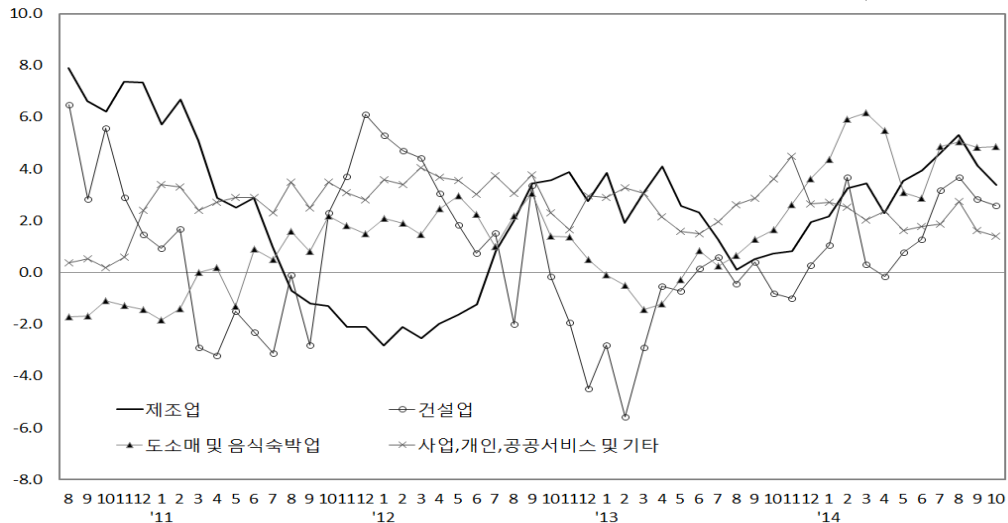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 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 통계청(2014. 11), 『2014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6〉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자료 : 통계청, KOSIS.

◆ 상용·임시근로자 증가 지속, 임금근로자 감소폭 상승

- 2014년 10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7,00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1천 명(-0.7%) 감소, 임금근로자는 18,94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56천 명(2.5%) 증가함.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2,236천 명으로 361천 명(3.0%), 임시근로자는 5,108천 명으로 147천 명(3.0%) 증가한 반면, 일용근로자는 1,602천 명으로 51천 명(-3.1%)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고용주 포함)는 5,730천 명으로 17천 명(0.3%)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전년동월대비 68천 명(-5.1%) 감소하였음.
- 2014년 10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49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2천 명(7.4%)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2,115천 명으로 120천 명(0.5%) 증가함.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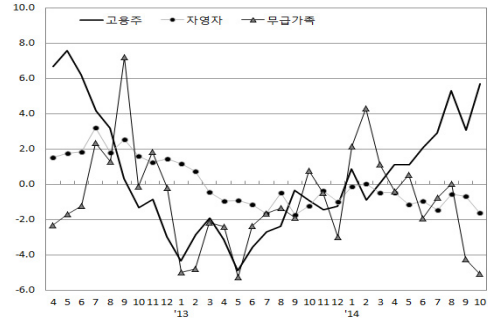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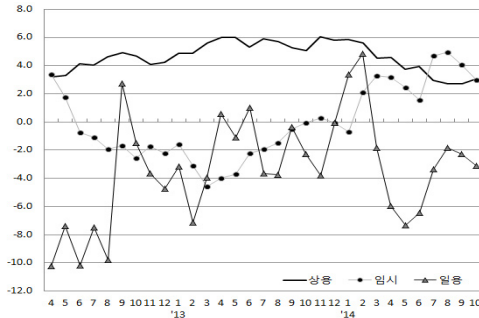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9월	10월
전 체	24,184 ( 1.1)	25,326 ( 1.3)	25,410 ( 1.7)	25,346 ( 2.2)	25,545 ( 1.9)	24,913 ( 3.0)	25,790 ( 1.8)	25,927 ( 2.0)	25,917 ( 1.8)	25,951 ( 1.6)
비임금근로자	6,578 (-1.1)	7,006 (-2.1)	7,049 (-1.5)	6,854 (-0.9)	7,056 (-0.8)	6,597 ( 0.3)	6,984 (-0.3)	7,047 ( 0.0)	6,999 (-0.5)	7,005 (-0.7)
자영업주	5,520 (-0.5)	5,726 (-1.8)	5,740 (-1.4)	5,618 (-0.9)	5,713 (-1.1)	5,512 (-0.1)	5,712 (-0.2)	5,760 ( 0.3)	5,742 ( 0.3)	5,730 ( 0.3)
무급가족종사자	1,059 (-3.9)	1,280 (-3.4)	1,309 (-1.6)	1,236 (-0.8)	1,343 ( 0.8)	1,085 ( 2.5)	1,272 (-0.6)	1,287 (-1.7)	1,257 (-4.2)	1,275 (-5.1)
임금근로자	17,606 ( 1.9)	18,320 ( 2.6)	18,361 ( 2.9)	18,492 ( 3.4)	18,489 ( 3.0)	18,316 ( 4.0)	18,806 ( 2.6)	18,880 ( 2.8)	18,918 ( 2.7)	18,945 ( 2.5)
상용근로자	11,379 ( 5.1)	11,697 ( 5.8)	11,848 ( 5.6)	11,925 ( 5.6)	11,875 ( 5.1)	11,985 ( 5.3)	12,175 ( 4.1)	12,181 ( 2.8)	12,213 ( 2.7)	12,236 ( 3.0)
임시근로자	4,762 (-3.1)	4,945 (-3.3)	4,928 (-1.3)	4,935 ( 0.0)	4,961 (-0.1)	4,835 ( 1.5)	5,063 ( 2.4)	5,153 ( 4.6)	5,138 ( 4.1)	5,108 ( 3.0)
일용근로자	1,465 (-4.8)	1,678 ( 0.2)	1,585 (-2.6)	1,631 (-2.1)	1,653 (-2.3)	1,496 ( 2.1)	1,567 (-6.6)	1,546 (-2.5)	1,568 (-2.3)	1,602 (-3.1)
36시간 미만	5,563 (67.9)	4,821 (46.8)	5,083 ( 7.6)	3,395 ( 5.5)	3,256 ( 3.8)	3,593 (-35.4)	3,397 (-29.5)	5,229 ( 2.9)	3,528 ( 2.4)	3,498 ( 7.4)
36시간 이상	18,099 (-9.9)	20,217 (-5.6)	19,810 ( 0.2)	21,636 ( 1.7)	21,995 ( 1.7)	20,829 (15.1)	22,090 ( 9.3)	20,184 ( 1.9)	22,049 ( 1.7)	22,115 ( 0.5)

주 :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4. 11), 『2014년 10월 고용동향』.



[그림 7]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 연령별 · 전 교육수준별 실업률 상승

○ 2014년 10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50~59세(2.3%, 0.8%p), 60세 이상(1.8%, 0.5%p), 30~39세(3.0%, 0.4%p), 40~49세(2.0%, 0.3%p), 15~29세(8.0%, 0.2%p) 순으로 소폭 상승함.

<표 5> 연령별 · 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 천 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2013					2014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0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0월
전 체	907 ( 3.6)	812 ( 3.1)	777 ( 3.0)	733 ( 2.8)	724 (2.8)	1,031 ( 4.0)	977 ( 3.7)	844 ( 3.3)	849 ( 3.2)	858 ( 3.2)
15~29세	343 ( 8.4)	325 ( 7.9)	328 ( 7.9)	328 ( 7.9)	318 (7.8)	419 ( 9.8)	399 ( 9.4)	371 ( 8.6)	358 ( 8.5)	336 ( 8.0)
30~39세	195 ( 3.3)	180 ( 3.0)	170 ( 2.9)	155 ( 2.6)	153 (2.6)	187 ( 3.2)	202 ( 3.4)	181 ( 3.0)	168 ( 2.8)	179 ( 3.0)
40~49세	143 ( 2.1)	146 ( 2.1)	131 ( 1.9)	114 ( 1.7)	116 (1.7)	155 ( 2.3)	167 ( 2.4)	145 ( 2.1)	137 ( 2.0)	139 ( 2.0)
50~59세	127 ( 2.3)	106 ( 1.8)	106 ( 1.8)	88 ( 1.5)	90 (1.5)	130 ( 2.2)	140 ( 2.3)	129 ( 2.1)	130 ( 2.1)	138 ( 2.3)
60세 이상	99 ( 3.4)	56 ( 1.6)	42 ( 1.2)	48 ( 1.4)	47 (1.3)	140 ( 4.4)	69 ( 1.9)	58 ( 1.5)	57 ( 1.5)	67 ( 1.8)
중졸 이하	148 ( 3.3)	101 ( 2.0)	86 ( 1.8)	84 ( 1.8)	75 (1.5)	173 ( 3.9)	108 ( 2.3)	95 ( 2.0)	91 ( 1.9)	97 ( 2.1)
고졸	367 ( 3.7)	341 ( 3.3)	345 ( 3.4)	335 ( 3.3)	324 (3.2)	443 ( 4.3)	427 ( 4.1)	414 ( 3.9)	381 ( 3.6)	377 ( 3.5)
대졸 이상	392 ( 3.7)	370 ( 3.4)	346 ( 3.1)	313 ( 2.8)	325 (2.9)	416 ( 3.7)	442 ( 3.8)	375 ( 3.3)	377 ( 3.3)	384 ( 3.4)
취업무경험실업자	61	48	54	49	41	83	61	56	44	48
취업유경험실업자	845	764	723	684	682	948	916	827	805	810

주 : (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 통계청(2014. 11), 『2014년 10월 고용동향』.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1%, 0.6%p), 대졸 이상(3.4%, 0.5%p), 고졸(3.5%, 0.3%p) 순으로 증가하였음.
- 2014년 10월 중 전체 실업자 858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4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 명 증가,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810천 명으로 128천 명 증가함.

(정현상, 동향분석팀 연구원)

## 임금 및 근로시간 동향

### ◆ 2014년 8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5.0% 상승

- 2014년 8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159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3,009천 원) 5.0% 상승함.
  - 2014년 8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정액급여 상승률이 3.1%임에도 불구하고 특별급여(13.2%)와 초과급여(11.8%)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5.0% 상승한 3,337천 원을 기록함.
    - ※ 초과급여: 연장(야근근로 포함) 및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
    - 특별급여: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 등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특별한 급여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3.2% 하락한 1,370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334천 원으로 전년동평균(3,068천 원) 대비 2.4% 상승함.
  - 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2013년 1~8월 평균 대비 2.5% 상승한 3,334천 원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가운데 정액급여는 전년 동평균 대비 3.1%, 초과급여는 8.9% 상승한 반면 특별급여는 2.5% 하락함.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전년 동평균 대비 0.9% 상승한 1,389천 원을 기록함.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천 원, %, 2010=100.0)

	2011	2012	2013	2014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844 ( 1.0)	2,995 ( 5.3)	3,111 ( 3.9)	3,068 ( 4.3)	3,009 ( 4.6)	3,334 ( 2.4)	3,159 ( 5.0)
상용 근로자	임금총액	3,019 (-0.9)	3,178 ( 5.3)	3,299 ( 3.8)	3,246 ( 4.2)	3,179 ( 4.6)	3,334 ( 5.0)
	정액급여	2,341 ( 4.8)	2,470 ( 5.5)	2,578 ( 4.4)	2,564 ( 4.6)	2,567 ( 4.0)	2,647 ( 3.1)
	초과급여	179 (-8.4)	181 ( 1.0)	184 ( 1.7)	182 ( 0.9)	181 ( 6.7)	199 ( 8.9)
	특별급여	498 (-19.3)	527 ( 5.8)	537 ( 1.8)	500 ( 3.5)	432 ( 7.2)	488 (-2.5)
임시·일용근로자 임금총액	1,215 (15.1)	1,293 ( 6.4)	1,377 ( 6.5)	1,379 ( 7.4)	1,416 ( 9.4)	1,389 ( 0.9)	1,370 (-3.2)
소비자물가지수	104 ( 4.0)	106 ( 2.2)	108 ( 1.2)	107.5 ( 1.4)	107.9 ( 1.5)	109.0 ( 1.4)	109.5 ( 1.4)
실질임금증가율	-2.9	3.1	2.6	2.8	3.0	1.2	3.5

주 :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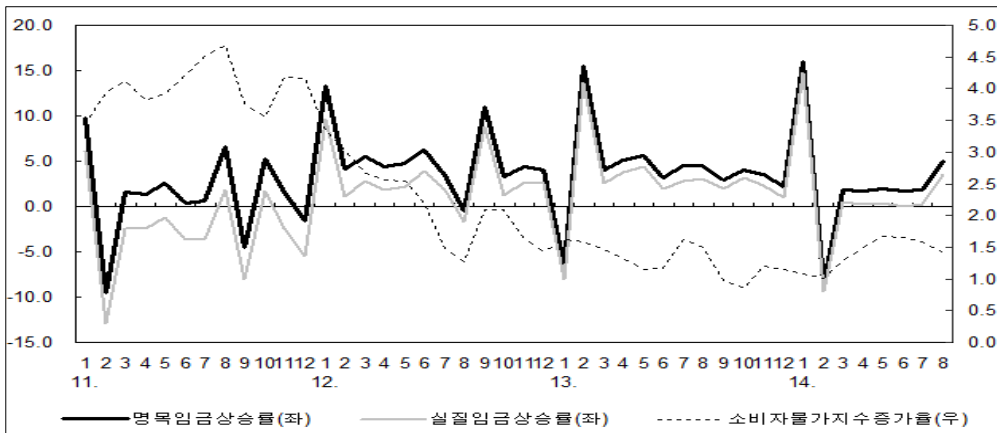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 2014년 8월 실질임금은 3.5% 상승함.

- 2014년 8월 소비자물가상승률(2010=100.0)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3.5% 상승함. 2014년 7월까지 실질임금상승률은 5개월 연속 0%대를 기록했었음(그림 8 참조).
- 2014년 1~8월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감안한 2014년 1~8월 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 상승하였으며, 이는 명목임금상승률의 둔화폭이 컸던 것에 기인함.

〈그림 8〉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2010=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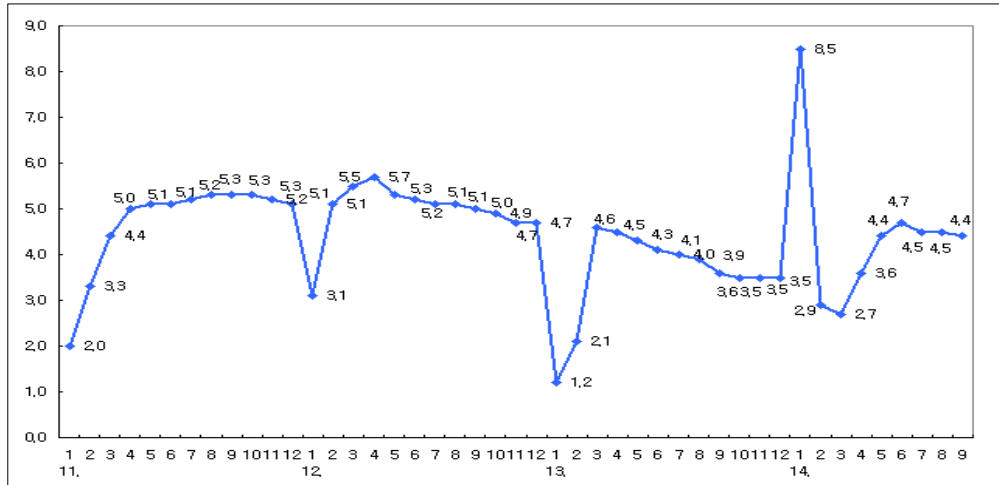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9월 협약임금 인상률 4.4%

- 2014년 9월 임금총액 기준 협약임금 인상률은 4.4%로 2013년 9월 인상률(3.6%)에 비해 0.8%p 상승함.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2) 월별 협약임금 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4년 8월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상승

- 2014년 8월 기준 광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4년 8월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금융 및 보험업(8.3%),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2%), 운수업(7.5%), 부동산업 및 임대업(7.0%), 교육서비스업(6.7%), 여가관련서비스업(5.4%),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4.6%)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총액이 증가함.
  - 반면 광업(-3.0%), 숙박 및 음식점업(-0.5%)의 임금은 전년동월대비 하락함.
- 2014년 1~8월 평균 대부분의 산업에서 임금이 상승함.
  - 2014년 1~8월 평균 기준 임금상승이 가장 높은 산업은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5.6%)이고, 다음으로 제조업(4.4%), 여가관련서비스업(3.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1%) 순으로 임금 상승이 두드러짐.
  - 반면 광업(-2.8%),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1.7%)에서만 임금이 하락함.

〈표 7〉 산업별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8월		1~8월	
			평균	8월	평균	8월
전 산업	2,995 ( 5.3)	3,111 ( 3.9)	3,068 (4.3)	3,009 (4.6)	3,149 ( 2.6)	3,159 ( 5.0)
광업	3,470 ( 4.9)	3,557 ( 2.5)	3,579 (2.6)	3,312 (5.4)	3,478 (-2.8)	3,212 (-3.0)
제조업	3,221 ( 6.1)	3,371 ( 4.7)	3,312 (5.3)	3,273 (6.1)	3,458 ( 4.4)	3,447 ( 5.3)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5,388 (-1.7)	5,542 ( 2.9)	5,175 (3.5)	4,396 (4.1)	5,306 ( 2.5)	4,598 ( 4.6)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654 ( 6.7)	2,743 ( 3.3)	2,683 (4.4)	2,732 (4.2)	2,766 ( 3.1)	2,836 ( 3.8)
건설업	2,273 ( 4.2)	2,414 ( 6.2)	2,406 (7.0)	2,337 (5.5)	2,471 ( 2.7)	2,428 ( 3.9)
도매 및 소매업	3,122 ( 6.1)	3,168 ( 1.5)	3,103 (2.3)	3,033 (2.0)	3,154 ( 1.7)	3,178 ( 4.8)
운수업	2,589 ( 8.2)	2,732 ( 5.5)	2,682 (5.5)	2,690 (2.8)	2,738 ( 2.1)	2,892 ( 7.5)
숙박 및 음식점업	1,738 ( 5.2)	1,772 ( 1.9)	1,735 (0.5)	1,805 (6.2)	1,742 ( 0.4)	1,796 (-0.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3,851 ( 4.3)	3,936 ( 2.2)	3,936 (3.2)	3,716 (1.7)	3,871 (-1.7)	3,838 ( 3.3)
금융 및 보험업	4,988 ( 4.6)	5,058 ( 1.4)	5,052 (1.8)	4,574 (2.5)	5,151 ( 2.0)	4,952 ( 8.3)
부동산업 및 임대업	2,194 ( 8.8)	2,269 ( 3.4)	2,239 (2.6)	2,107 (2.4)	2,294 ( 2.4)	2,254 ( 7.0)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112 ( 6.3)	4,243 ( 3.2)	4,095 (3.5)	4,158 (5.3)	4,326 ( 5.6)	4,498 ( 8.2)
사업서비스업	1,789 ( 5.3)	1,883 ( 5.2)	1,862 (6.0)	1,888 (6.3)	1,898 ( 1.9)	1,906 ( 0.9)
교육서비스업	3,123 ( 4.6)	3,261 ( 4.4)	3,347 (5.5)	3,342 (3.0)	3,428 ( 2.4)	3,565 ( 6.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608 ( 4.7)	2,662 ( 2.0)	2,641 (2.5)	2,624 (2.6)	2,644 ( 0.1)	2,678 ( 2.1)
여가관련 서비스업	2,211 ( 3.8)	2,326 ( 5.2)	2,292 (6.4)	2,185 (6.0)	2,374 ( 3.6)	2,303 ( 5.4)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228 ( 2.0)	2,226 (-0.1)	2,210 (0.6)	2,209 (1.2)	2,213 ( 0.2)	2,264 ( 2.5)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8월 중소·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용근로자 임금 증가

- 2014년 8월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증가함.
  - 2014년 8월 기준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임금총액은 2,993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하였고, 이는 특별급여(22.1%)와 초과급여(8.6%) 상승에 기인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임금총액은 초과급여(25.4%)와 특별급여(14.6%) 증가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0.4% 상승한 4,752천 원을 기록함.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비상용근로자 임금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8월 평균	8월		
전 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3,178( 5.3)	3,299( 3.8)	3,246( 4.2)	3,179( 4.6)	3,334( 2.7)	3,337( 5.0)
	정액급여	2,470( 5.5)	2,578( 4.4)	2,564( 4.6)	2,567( 4.0)	2,647( 3.2)	2,646( 3.1)
	초과급여	181( 1.0)	184( 1.7)	182( 0.9)	181( 6.7)	199( 9.2)	202(11.8)
	특별급여	527( 5.8)	537( 1.8)	500( 3.5)	432( 7.2)	488(-2.3)	489(13.2)
	비상용임금총액	1,293( 6.4)	1,377( 6.5)	1,379( 7.4)	1,416( 9.4)	1,389( 0.7)	1,370(-3.2)
5~299인	상용임금총액	2,834( 5.9)	2,938( 3.7)	2,897( 4.0)	2,860( 4.7)	2,966( 2.4)	2,993( 4.7)
	정액급여	2,333( 5.9)	2,433( 4.3)	2,421( 4.5)	2,434( 4.3)	2,491( 2.9)	2,494( 2.5)
	초과급여	156( 3.5)	160( 3.0)	159( 2.8)	161( 7.5)	170( 7.0)	175( 8.6)
	특별급여	345( 7.7)	345(-0.3)	316( 1.0)	265( 6.3)	304(-3.8)	324(22.1)
	비상용임금총액	1,301( 7.0)	1,392( 7.0)	1,392( 8.0)	1,419(10.5)	1,390(-0.1)	1,354(-4.6)
300인 이상	상용임금총액	4,424( 3.5)	4,583( 3.6)	4,488( 4.3)	4,305( 3.2)	4,732( 5.4)	4,752(10.4)
	정액급여	2,965( 4.3)	3,093( 4.3)	3,073( 4.7)	3,035( 2.5)	3,238( 5.4)	3,269( 7.7)
	초과급여	275(-3.9)	270(-1.6)	263(-3.6)	251( 3.5)	306(16.6)	315(25.4)
	특별급여	1,185( 3.4)	1,220( 3.0)	1,152( 5.2)	1,019( 5.3)	1,188( 3.1)	1,168(14.6)
	비상용임금총액	1,209( 0.1)	1,219( 0.8)	1,234( 0.5)	1,377(-3.8)	1,379(11.7)	1,620(17.7)

주: 1)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2)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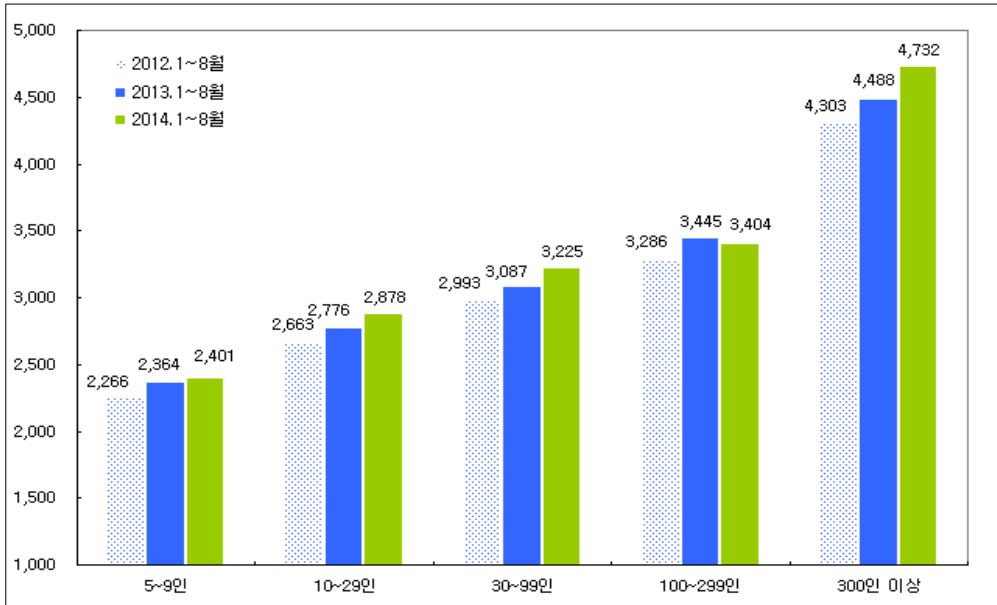
- 2014년 8월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상승한 반면, 중소기업 사  
업체에서는 하락함.
  - 2014년 8월 기준 300인 이상 규모의 비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전년동월대비 17.7%  
상승한 1,620천 원인 반면, 5~299인 규모의 임금총액은 4.6% 하락한 1,354천 원을  
기록함.
- 2014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에서 증가함.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2,966천 원으로 전년동기간  
대비 2.4% 상승하였고, 이는 정액급여(2.9%), 초과급여(7.0%)의 영향으로 상승하  
였지만 특별급여는 전년동기간 대비 3.8% 하락함. 중소기업 사업체 규모별 임금  
은 100~299인 규모(-1.2%)에서만 임금이 하락함.
  - 300인 이상 규모의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은 4,732천 원으로 전년동기간 평균 대비  
5.4% 상승하였고, 이는 정액급여(5.4%), 초과급여(16.6%), 특별급여(3.1%)가 모두

상승한 영향임.

-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임금총액은 중소기업에서는 전년 동평균 대비 0.1% 하락한 반면,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11.7% 상승함.

[그림 10]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주: 1~8월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8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21일→20일) 감소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

- 2014년 8월 근로시간은 163.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함.
  - 2014년 8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163.6시간)은 전년동월(169.9시간)에 비해 6.3시간 감소함(표 9 참조).
    - ※ 월력상 근로일수(21일→20일) 감소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67.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0% 감소하였고,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19.5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1% 감소함.
- 2014년 1~8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1.4% 감소함.
  - 2014년 1~8월 평균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1.3시간으로 전년 동평균(173.8시간)에 비해 2.5시간 감소함.

- 2014년 1~8월 평균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초과근로시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평균 대비 1.3% 감소한 176.8시간을 기록함. 한편 비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4.8% 감소한 118.2시간을 기록함.

〈표 9〉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천 원, %)

	2012	2013	2014			
			1~8월 평균		1~8월 평균	
			8월	8월	8월	
전체근로시간	174.3(-1.1)	172.6(-1.0)	173.8(-0.7)	169.9(-2.7)	171.3(-1.4)	163.6(-3.7)
상용총근로시간	179.9(-1.2)	178.1(-1.0)	179.1(-0.8)	174.9(-2.5)	176.8(-1.3)	167.9(-4.0)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7.2(-0.8)	165.6(-1.0)	166.8(-0.6)	162.6(-3.0)	163.9(-1.7)	155.1(-4.6)
상용초과근로시간	12.8(-5.9)	12.5(-2.3)	12.3(-4.7)	12.3( 6.0)	13.0( 5.7)	12.8( 4.1)
비상용근로시간	122.3(-0.2)	122.5( 0.2)	124.2( 1.7)	123.3(-4.2)	118.2(-4.8)	119.5(-3.1)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근로시간.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8월 근로시간은 근로일수의 감소로 전산업에서 감소

- 2014년 8월 근로시간은 전산업에서 감소함.
  - 2013년 8월 전년동월대비 근로시간은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7.4%), 숙박 및 음식점업(-5.5%), 운수업(-5.1%),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4.9%), 교육서비스업(-4.7%) 등에서 큰 폭으로 감소함.
- 2014년 1~8월 평균 근로시간은 전년 동평균 대비 감소함.
  - 2014년 1~8월 평균 근로시간은 교육서비스업(0.5%), 여가관련서비스업(0.4%)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감소함.
  - 2014년 1~8월 평균 근로시간이 크게 감소한 산업은 건설업(-3.7%),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3.6%), 운수업(-3.4%),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3.1%) 등임.



〈표 10〉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시간, %)

	2012	2013	2014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1~8월 평균	8월
전 산업	174.3(-1.1)	172.6(-1.0)	173.8(-0.7)	169.9(-2.7)	171.3(-1.4)	163.6(-3.7)
광업	185.3(-0.9)	180.6(-2.5)	181.5(-2.7)	176.3(-6.2)	179.1(-1.3)	173.4(-1.6)
제조업	186.4(-2.2)	185.0(-0.8)	185.6(-0.7)	179.4(-0.6)	185.5(-0.1)	172.3(-4.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175.5(-0.9)	173.4(-1.2)	175.4(-0.6)	174.0(-2.5)	170.5(-2.8)	166.2(-4.5)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184.8(-0.8)	182.0(-1.5)	183.6(-1.1)	181.7(-2.1)	178.0(-3.1)	173.6(-4.5)
건설업	152.5(-0.9)	152.7( 0.1)	154.4( 1.4)	146.5(-6.2)	148.7(-3.7)	143.1(-2.3)
도매 및 소매업	174.5(-0.3)	173.4(-0.6)	174.6(-0.1)	171.1(-2.6)	172.1(-1.4)	165.1(-3.5)
운수업	181.7( 0.1)	177.8(-2.1)	178.8(-2.1)	177.5(-3.2)	172.8(-3.4)	168.5(-5.1)
숙박 및 음식점업	186.6( 0.2)	177.3(-5.0)	176.7(-6.3)	182.4(-3.5)	173.5(-1.8)	172.3(-5.5)
출판·영상·방송통신서비스업	163.9(-0.4)	163.0(-0.5)	164.4(-0.3)	162.7(-3.7)	162.4(-1.2)	154.7(-4.9)
금융 및 보험업	163.4(-0.1)	162.7(-0.4)	164.0(-0.1)	159.2(-4.3)	163.6(-0.2)	155.6(-2.3)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3.4(-0.4)	191.5(-1.0)	193.1(-1.0)	188.5(-2.5)	189.4(-1.9)	182.6(-3.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5.3(-0.5)	163.9(-0.8)	164.9(-0.8)	159.4(-5.2)	162.9(-1.2)	154.9(-2.8)
사업서비스업	173.1( 0.6)	172.3(-0.5)	173.3(-0.5)	171.8(-3.4)	171.6(-1.0)	166.1(-3.3)
교육서비스업	151.1(-1.2)	150.6(-0.3)	152.4(-0.4)	155.6(-1.5)	153.1( 0.5)	148.3(-4.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4.8( 0.7)	172.0(-1.6)	173.8(-1.0)	171.8(-3.7)	169.2(-2.6)	164.0(-4.5)
여가관련서비스업	158.1( 0.6)	158.0(-0.1)	158.5( 0.3)	158.0(-1.8)	159.1( 0.4)	154.9(-2.0)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168.9(-2.7)	167.5(-0.8)	169.6(-0.3)	170.9( 0.0)	163.5(-3.6)	158.3(-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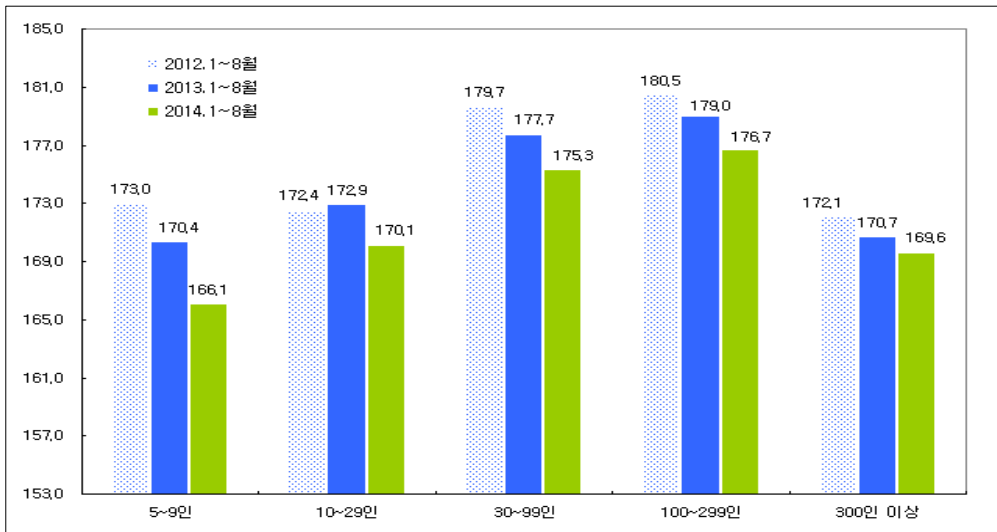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4) 1~8월 평균값은 누적평균값임.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4년 8월 사업체규모별 평균 근로시간은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 감소

- 2014년 8월 평균근로시간은 대규모 사업체에서 감소폭이 더 큼.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3.7% 감소한 164.2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에서는 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한 160.6시간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 또한 중소기업·대규모 사업체 모두에서 감소함. 세부 규모별로 보면,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2시간으로 전년 동월대비 3.8%,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9.6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그림 11] 전체 근로자의 사업체규모별 기간평균(1~8월)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3.6%,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8.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4.1%, 300인 이상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61.9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3.9% 감소함.

- 한편 2014년 1~8월 평균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모든 사업체 규모에서 감소함.
  - 5~299인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전년동월대비 1.7% 감소한 171.7시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는 전년동월대비 0.6% 감소한 169.6시간을 기록함.
  - 상용근로자 5~9인 사업체의 2014년 1~8월 평균 총 근로시간은 176.6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2.1%, 10~2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7.9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1%, 30~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8.2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9%, 100~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79.6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1.0% 감소함으로써 상용근로자 중소기업의 총 근로시간은 178.0시간으로 전년 동평균 대비 1.5% 감소함.
  -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총 근로시간은 172.4시간으로 전년동평균대비 0.3% 감소함.

(김복순,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

## 노사관계 및 노동정책 동향

### ◆ 노동쟁의 조정사건과 조정성립률

- 지난 10월 노동쟁의와 관련된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748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0월 노동쟁의 조정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건수(616건)보다 132건 높은 수치임.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 53.9%
  - 지난 10월 조정성립률은 작년 동월 성립률 66.4%에 비해 12.5% 낮아진 수치임.
  - 조정사건 접수건수의 증가와 조정성립률의 저하를 통해 노사관계의 악화, 조정이 슈 복잡성의 증가 사실을 유추할 수 있음.

〈표 11〉 2013년, 2014년 10월 조정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 건수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행정 지도	취하 철회	진행중	조정 성립률
			소계 A	조정안 수락	합의 취하	소계 B	조정안 거부	조정 중지				
2014. 10	748	713	317	132	185	271	36	235	44	81	35	53.9
2013. 10	616	580	332	210	122	168	56	112	23	57	36	66.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 복수노조사건

- 지난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337건(이월사건 포함건수)
  - 지난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건수는 작년 동월(384건)보다 47건 낮은 수치임.
  - 진행중인 사건을 제외하고 전부 및 일부 인정비율이 31.2%(94건), 기각·각하·취하 비율이 68.2%(202건)를 차지함.

〈표 12〉 2013년, 2014년 10월 복수노조사건 접수 및 처리내역별 현황

	접수 건수	처리내역							진행중
		계	전부 인정	일부 인정	기각	각하	취하	화해	
2014. 10	337	296	87	7	68	38	96	0	40
2013. 10	384	379	169	4	45	38	123	0	6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 **공무원과 교원 총궐기 대회, 공무원연금개편 반대 집회**

- 지난달 1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공적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가 주최한 ‘100만 공무원·교원 총궐기대회’가 12만 명(주최측 추산)이 참석한 가운데 열림.
  - 공동투쟁본부에는 전교조·공노총·공무원노조·한국노총공무원연금특별위원회·사학연금공동대책위원회·한국교총 등 50여 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목소리로 “정부·여당을 심판하자”고 주장함.
  - 공노총 위원장은 “정부 정책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 정부를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자”며 “공적연금을 복원시키기 위해 100만 공무원이 단결해 투쟁하자”고 호소함.
  -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죽이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해 우리의 노후를 재벌들에게 넘기려 한다”며 “연금 민영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가족들과 함께 새누리당 정권을 반드시 심판하자”고 강조함.
- 투쟁본부는 이날 총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정부·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에 방어적으로 대응해 왔던 전략을 대폭 수정하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을 노후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강화해 가는 범국민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힘.
  - 공투본은 결의문을 통해 “공적연금을 강화해야 할 정부가 국민의 노후를 내팽개친다면 800만 공무원·교직원 가족들은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며 “정부가 공공 분야를 민영화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을 경우 정부 불신임 선언과 함께 거리로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동시에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야 한다는 주문도 뒤따름.
  - 한국노총 공무원연금 개악저지를 위한 전국퇴직공무원협의회 대표는 “공무원연금 삭감 시도를 막지 못하고 앞으로 국민연금 축소로까지 나아갈 경우 국민은 불안정한 노후에 내몰릴 것”이라고 우려함.

◆ **공무원 대다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반대**

-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한 공무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투표에 참여한 공무원의 99%가 반대의사를 밝혔다고 전함.
  - 공투본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은 100만 6,247명이며, 이 중 노조가 없거나 단체행동에 제약이 있는 공무원 20여만 명을 제외한 79만 6,814명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여 1급부터 9급까지 55.87%(44만 5,208명)가 투표에 참여하

였다고 밝힘.

-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공무원은 43만 9,145명(98.64%)이고 찬성한 응답자는 4,411명(0.99%)으로 집계됨.
- 대한민국의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은 “공무원연금에 대해 진단을 해야 어떤 처방을 할 것인지 대책이 나올 텐데, 박근혜 정부는 일방적으로 수술만 하려 한다”며 “정부·여당은 공무원연금을 제대로 만들 수 있도록 대화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요구함.
- 공투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철회와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정부에 촉구하고, 정부·여당이 연말에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긴급대표자회의를 열고 총파업 투쟁과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엠 비정규직 노동자, 고공농성 돌입

- 지난달 12일 케이블방송업체인 씨앤엠 비정규 노동자들은 사측이 대화를 거부하면서 장기화하고 있는 씨앤엠 사태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 해고자 복직과 고용보장, 임금·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돌입함.
  - 희망연대노조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소속 조합원 두 명은 서울 중구 파이낸스 빌딩 앞 옥외광고판에 올라가 “씨앤엠 대주주인 MBK파트너스가 노조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내려가지 않겠다”고 밝힘.
  - 노동조합 공동위원장은 “MBK파트너스가 씨앤엠 매각가를 높이려고 노조 파괴와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정규직들이 대량 해고됐고, 이대로 가면 더 많은 노동자들이 밀려나게 될 것”이라며 “MBK 사장이 직접 나와 조합원에 대한 선별해고를 철회하고 구조조정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지 않으면 고공농성자들과 함께 죽기살기로 싸울 것”이라고 강조함.
  - 한편 노조는 이날 “국내 금융권과 공적연금이 반사회적 투기자본에 투자해 먹튀와 노동자 탄압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함께 국민연금공단과 은행들에 대한 특별감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함.
- 케이블방송업체 씨앤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격려가 줄을 잇고 있음.
  - 공공운수노조는 12일 성명을 내고 “씨앤엠과 대주주 MBK는 해고자 고용승계와 원직복직을 위해 노조와 성실히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원청 사용자들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하고 권리 찾기에 나서면 한결같이 나 몰라라 버틴다”며 “케이블 비정규직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거의 동일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힘.

-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을 양산해 초과이윤을 착취하려는 자본의 행태가 사회 곳곳에 퍼지고 있고, 이에 대항하는 노동자들의 싸움이 처절해져만 가고 있다”며 “케이블 비정규직의 투쟁에 마음을 보내며 함께 투쟁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지회도 적극 연대하겠다”고 말함.

### ◆ 대법원, 쌍용차 정리해고 정당

- 쌍용차 해고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회사에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당시 회사가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여, 정리해고는 유효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 대법원은 특히 서울고법의 2심 판결에서 쟁점으로 제기된 쌍용차의 회계조작 논란과 관련해 철저히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고, 쌍용차가 정리해고 전년인 2008년 재무제표상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장하는 방법으로 경영위기를 부풀렸다는 해고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쌍용차)가 손상차손 인식의 대상이 된 유형자산에서 생산될 차량의 예상 매출수량을 부당하게 과소 추정함으로써 해당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 과다 계상됐다고 봤으나, 미래에 대한 추정은 불확실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예상 매출수량 추정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가정을 기초로 한 것이라면 그 추정이 다소 보수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그 합리성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판결함.

- 재판부는 이 밖에 △경기불황·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세제혜택 축소·정유가격 인상에 따른 계속적 구조적 위기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존재했고 △인원감축 규모가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회사가 정리해고에 앞서 부분휴업·임금동결·순환휴직·사내협력업체 인원 축소·희망퇴직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판결 후, 쌍용차차지부장은 “어젯밤 (판결 결과에 따라) 누군가 우리 걸을 떠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잠을 설쳤다”고 말하고, “우리는 반드시 공장으로 돌아갈 것이고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절대로 우리를 잊지 말아 달라”고 밝힘.

-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동계를 비롯하여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와 야권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섬.
  - 한국노총은 성명을 내고 “25명의 노동자와 가족들이 죽음을 선택하게 한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오늘 사용자 손을 들어줌으로써 우리를 실망시켰고 사법정의를 사라졌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해 보였다”고 비판함.

◆ **노동·시민단체, 경비노동자 사건 해결 촉구**

- 한 경비원의 분신을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민주노총 등 12개 노동 및 시민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함.
  - 10월 7일 한 경비노동자가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안에서 분신자살을 기도하였고, 한 달 만인 지난달 11월 7일 끝내 숨짐.
  - 민주노총은 지난달 9일 압구정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집회를 갖고 이번 사태를 초래한 입주민대표자회의를 상대로 책임 있는 사태해결을 촉구함.
  - 민주노총은 “입주민대표자회의는 가해 입주민의 사과, 인권침해 재발방지, 고용안정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대화를 거부하고 피해노동자의 요구를 무시한다면 집결투쟁에 그치지 않고 투쟁 수위를 높ی겠다”고 경고함.
- 경비노동자들을 돕는 한 변호사는 재발방지대책 등을 놓고 아파트 측 관리회사와 교섭을 시도하던 중, 아파트 동대표들이 모여 이 회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이 결렬됨.
  - 변호사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적 책임이 없다”며 협상을 거절했고, 관리회사는 “결정권은 입주자에게 있다”며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밝힘.
  - 한 경비원은 “이미 관리회사를 바꾸겠다고 아파트에 공고가 붙었다. 남은 경비원이 80여 명 정도인데 다 같이 계약해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함.

◆ **현대중공업, 연봉제 도입 논란으로 노사갈등 증폭**

- 현대중공업이 다음 달 초 시행 목표로 성과 중심 연봉제 도입을 진행하면서, 노사갈등이 임금인상에서 임금체제 개편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
  - 노사는 지난 6개월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임금·단체교섭을 벌였으나 노조와 사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노조는 10월 22일 전체 투표참가자의 97.1%(1만 11명)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함.

- 사측은 이후 “올해 2분기 1조 1,03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며 조직개편과 함께 12월 1일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힘.
- 노조 관계자는 “회사에서 발표한 연봉제는 기존에 지급하던 상여금 400%를 업적금이라는 이름만 붙여 5등급으로 차등해 지급하겠다는 것”이라며 “회사 측은 이러한 제도를 조합원 비조합원 가리지 않고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거나 심지어 서명을 조작하면서까지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함.
- 노조 위원장은 “회사 측은 연봉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기본급 중심 인금인상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말함.

◆ **풀무원 운수물류업체, 노조가입 이유로 계약해지**

- 지난달 5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강원지부에 따르면 노조가입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지부 산하 풀무원분회가 새벽 2시부터 파업에 돌입함.
  - 분회는 화물노동자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풀무원 자회사인 엑소후레쉬물류와 거래를 하는 대원냉동운수, 서울가람물류에서 일하고 있음.
  - 그동안 대원냉동과 서울가람은 화물노동자가 받아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가로채거나 각종 페널티를 적용하여 노동자들에게 벌금을 부과해 왔고, 화물노동자가 일을 못해 대차를 사용할 경우 대차비용에 수수료를 얹어 이들에게 부담시키기도 함.
  - 지부 관계자는 “충북지역 화물노동자 사이에서 풀무원 물류센터에 대한 악명이 나온 것은 오래됐다”며 “지부가 지난 1년간 화물노동자들을 만나 올해 8월 분회를 설립했다”고 말함.
  - 분회 결성 후, 대원냉동과 서울가람은 9월 말 ‘불법모임과 외부단체에 가입해 분회 조합원 전원을 11월 말 계약해지 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조합원들에게 보냄.
  - 화물연대의 한 관계자는 “내용증명 철회와 운송사 사과, 화물연대·풀무원식품·운송사 3자 정례협의회 상설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풀무원식품을 상대로 화물연대 차원의 집중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함.

◆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농축산업 고용사업장 점검**

- 고용노동부가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지



도·점검에 나서고, 농축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한 외국인노동자 근무실태조사도 진행함.

- 국회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축산업에서 표준근로계약서상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관행이 문제시되었고, 일부 언론은 농축산업 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폭행·성희롱 등 인권침해 문제를 보도함.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에서는 농축산업 분야의 비중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량 많아졌고,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노동자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위반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근무를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며,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휴일·휴게 보장 등 사업주의 적극적인 근무환경 개선을 유도할 예정임.
- 또한 농축산업 근무실태 조사를 진행하여 △일일 근무시간 △휴일 △일급에서 숙소비용 공제 여부 및 공제액 △임금체불 경험 △폭행·성희롱 등 근무환경과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한 뒤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제 개선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임. **KL**

(정재우, 동향분석팀 연구원)